

15 서로 사랑하라

Chapter

요 13:34~35, 요일 4:7~21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 하심은), 찬양 143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배울



말씀

1. 형제자매와의 우정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압니다.
2.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1.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2. 세상 친구보다 형제자매가 좋은 이유를 세 가지 적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말씀을 이해하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발이 가시에 찢리면 눈은 재빨리 다친 부위를 살피고, 손이 가시를 빼낸 후 어루만져 줍니다. 입은 '아이 아파~' 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온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제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사랑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사탄이 형제자매를 서로 이간시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누려는 꾀계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투면 이는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그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에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서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실제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움켜쥔 채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형제자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s God. H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1 Jn 4:7~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13:34~35)

(갈 5:13~15)

(요일 3:14~19)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요한일서 4장 7~21절을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1.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죄악과 고통, 슬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2. 하나님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9~10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3.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11~12절, 20~21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4. 18절에 의하면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매사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경험을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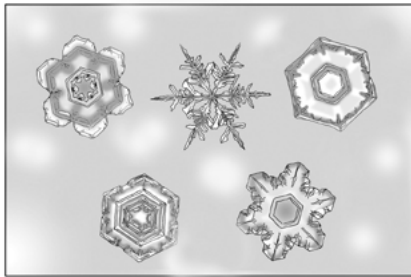
눈송이에 나타난 창조의 지혜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눈송이는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똑같은 눈송이는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을 만큼 하나하나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 속에서도 놀라운 지혜를 보여 주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어딘가 다 다릅니다. 이 눈송이 하나하나에도 놀라운 정도로 설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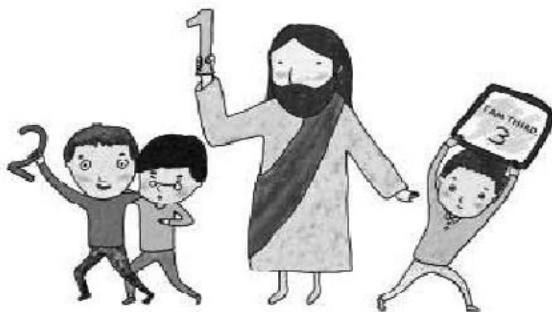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지니라 (롬 1:20)

나는 세 번째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뛰어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끝마칠 뿐만 아니라 성적이 뒤지는 친구들도 가능한 대로 힘껏 돕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물론 교수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을 추수를 끝마치자 맛있는 과일들을 상자에 담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 몇몇을 초대해서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의 초청을 받아 온 친구들은 그의 책상 앞에 걸린 이상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사진들에는 으레 사진이나 그림 혹은 유명한 글귀를 넣어서 걸어두기 마련인데 그 사진 틀에는 “나는 세 번째”라는 제목의 짧은 글귀만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와 사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그에게 “도대체 그 글귀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지. 내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를 공부시켜 주신다네. 그런데 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자, 어머니께서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저 사진틀을 내게 주셨다네. 어디를 가든지 저 사진틀을 책상 앞에 두고, 저 글귀를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면서 말이네. 그 이후로부터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저 글귀는 나를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되었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언제나 맨 처음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란다.’라고....”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